

배합사료 가격 인하 발표의 허와 실

- 사료가격 과연 IMF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왔는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료비가 양돈생산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70%에 달하기 때문에, 양돈농가라면 누구나 사료가격의 오르내림에 신경을 곤추세우게 마련이다. 사료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생산비 증가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양돈농가의 고통지수가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

축협을 비롯해 여러 사료회사들이 IMF 이후 7-8차례의 사료가격을 인하하면서, 현재 사료가격이 IMF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왔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농림부도 각종 회의석상에서나 대농민 홍보자료를 통하여 사료가격이 IMF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결론적으로 말해 많은 양돈농가들이 느끼는 사료값 인상지수는 품목에 따라, 사료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직도 IMF 이전보다 13%, 많게는 20%까지 올랐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솔직한 현실이다.

지난 97년말 IMF 구제금융 결정 이후 사료가격은 12월 한달동안에만 두차례에 걸쳐 가중 누계로 평균 40.1% 인상되었다. 그후 사료회사들은 업체에 따라 98년 4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한차례에 3-5%씩 6-7차례에 걸쳐 사료가격을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금년들어서는 2월8일에 축협이 총 6%(한시 인하율 4% 포함)의 사료가격을 인하한데 이어, 민간 사료회사들도 사료가격 인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축협은 이번 인하로 사료가격이 IMF 이전 수준으로 거의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품목에 따라 마이너스 0.6%에서부터 2-3% 오른 수준이고, 1-2개 품목만 6-8% 올랐다고 밝혔다.

IMF 전보다 옥수수 19.7%, 대두박 36.6% 하락

이처럼 사료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제 사료곡물 가격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국제 옥수수 가격은 97년 12월의 133.3달러에서 98년 12월에는 107.1달러로 19.7% 하락했다. 대두박 가격도 305.2달러에서 193.6달러로 36.6%나 하락했다. 2,000원 선까지 치솟았던 달러에 대한 환율도 최근에는 1,170원 내외에서 안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의 사료값 인하 유도과 사료회사들의 양축농가와 의 고통분담 의지 또한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와 사료회사들이 사료가격 인하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돈농가들이 느끼는 사료가격지수가 정부나 사료회사의 발표치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돈농가, IMF 이전보다 13~20% 오른 가격에 사료 구입

실제 A사료를 이용하는 갑농장의 경우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IMF 이전보다 20% 내외 오른 가격으로

사료를 구입하고 있다. 같은 지역 양돈인 다수도 같은 가격으로 그 사료를 쓰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현찰로 사료를 구입하고 있는 을농장의 경우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도 IMF 이전보다 품목에 따라 8.1%에서 최고 16.3%까지 오른 가격에 사료를 구입하고 있다. 이 농장의 경우 kg당 사료단가가 97년 305.5원에서 98년에는 382.4원으로 평균 25.2% 올랐다(<표3참조>). 그렇다면 이들 농장만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사료를 구입한다 말인가?

실제 정부가 조사한 양돈사료 매출액 추정자료(공장도 가격 기준)에서도 98년 12월의 kg당 배합사료 평균 단가가 345.1원으로 IMF 이전인 97년 11월의 304.0원보다 13.5%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축협사료와 민간 사료회사업체의 사료를 총 평균하더라도 최소한 평균 13.5%가 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서도 98년 1년간 총 사료단가(386원)가 97년(307.7원)보다 25.5%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왜곡될 때 결국 피해는 양돈농가만 입게 돼

이처럼 양돈농가들은 실제 IMF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료를 구입해서 쓰고 있다. 만일 정부나 사료회사들의 발표대로 사료가격이 IMF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면 이같은 수치는 정부의 돼지가격이나 수급정책에 당연히 반영될 것이고, 양돈생산비에도 영향을 미쳐 실제보다 생산비가 낮게 나타나거나, 양돈농가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그러면 국세청의 양돈 표준 소득률에도 영향을 미쳐 양돈농가들이 실제 얻은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된다.

<표1> A양돈장의 IMF 전후 사료 구입가격 비교 (단위: 원/포대)

품 목	IMF이전	99. 2. 1	인상률
갓난돼지사료	13,130	15,950	21.2%
젓먹이돼지사료	11,620	13,350	14.9%
젓뎀돼지사료	7,740	9,300	20.2%
육성돈사료	7,040	8,480	20.5%
임신돈사료	6,200	7,430	19.8%
포유돈사료	7,220	8,700	20.5%

<표2> B양돈장의 IMF 전후 사료 구입가격 비교 (단위: 원/포대)

품 목	IMF이전	99. 2. 1	인상률
갓난돼지사료	11,870	13,810	16.3%
젓먹이돼지사료	7,820	8,700	11.3%
육성돈사료	6,850	7,910	15.3%
임신돈사료	6,720	7,300	8.1%
포유돈사료	7,080	8,000	13.0%

<표3> B양돈장의 연도별 사료구입 단가 비교

구 분	96(A)	97(B)	98(C)	C/B(%)
총급여량(kg)	604,725	619,050	589,940	95.3
총사료구입비(천원)	178,682	189,104	225,636	119.3
kg당 사료단가(원)	295.5	305.5	382.4	125.2
농장 총사료요구율	2.88	2.86	2.84	99.3
kg 증체당 사료비(원)	850	876	1,087	124.1

만일 사료회사들이 IMF 이전 수준으로 사료가격을 떨어뜨렸는데도 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료가 유통되고 있다면 중간업자들의 농간이 있거나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반드시 색출해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실제로 사료가격이 아직도 13~20% 인상되었다면, 정부와 사료업체들은 솔직하게 그 이유를 양돈농가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발표대로 IMF 이전 수준까지 사료가격을 내릴 수 있는 데도 안내렸다면 지금이라도 가격을 당장 내려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양돈농가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기 때문이다.(김) **양돈**